



12면

'시민 행복이 도시의 내일'
지난 한 해 남원시정 살펴보기

전주매일

2021년 1월 7일 목요일 (음 11월 24일) 제269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올해의 전주는 '경제'

시, 시정운영방향 발표

▶ 관련기사 16면

혁신적 디지털 뉴딜
수소·탄소·드론 등
신성장산업 질적 도약
지역경제 살리기 주력

생태·문화 등 4대 분야
17대 추진전략 제시

김 시장 "상상력·용기
연대의 힘으로 미래 열 것"



김승수 전주시장이 6일 시청 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시정운영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상상력과 용기, 그리고 연대의 힘으로 담대한 미래를 열겠다'는 비전 아래 경제 등 4대 분야, 17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올 한해 코로나 19 여파로 하루가 다르게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민생경제의 반등을 이끌어 시민 모두가 먹고 사는 걱정이 없는 전주를 만드는 데 온 힘을 집중하기로 했다.

혁신적 디지털 뉴딜과 수소·탄소·드론·금융 등 4대 신성장산업의 질적 도약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동시에 생태·문화·사람 중심의 정책을 펼쳐 전주를 대한민국을 리드하는 대표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 시장은 6일 시청 회의실에서 2021년 시정운영방향을 설명하는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상상력과 용기, 그리고 연대의 힘으로 전주의 담대한 미래를 열겠다'라는 비전 아래 경제·생태·문화·사람 등 4대 분야, 17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전주시는 코로나19로 침체돼 있는 경제 분야의 경우 ▲혁신적 디지털 뉴딜로 경쟁력 강화 ▲4대 신성장산업 질적 도약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확립 ▲공공·민간 일자리 창출 및 취·창업 생태계 구축 등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발맞춰 혁신적인 디지털 뉴딜도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ICT 이노베이션 스캐어 등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J-디지털 교육밸리 운영을 강화해 전국 최고 수준의 디지털 핵심인재

를 양성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신산업융합 지식산업센터 등 혁신성장 5대 거점도 구축하기로 했다.

더불어 올해 수소농기계협동조합과 통합 안전운영센터 건립에 착수하고 국가기관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정착을 지원하는 등 대한민국 수소·탄소산업을 이끄는 리더도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드론산업의 역량 강화와 제3금융도시 도약을 위한 금융생태계 활성화 등 4대 신성장산업 질적 도약에 공을 들이기로 했다.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데에도 힘을 쓴다. 전주형 지역화폐인 전주시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4배 확대하는 한편 제2의 착한 임대운동인 매출 연동형 임대료 제도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복안이다.

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생태도시로 대전환하기 위한 생태 분야에서는 ▲공공·민간 그린 프로젝트 ▲천만 그루 정원도시 확대 조성 ▲생태교통 인프라 구축 및 그린모빌리티 선도 ▲탄소저감 및 에너지 전환 사업 ▲풍력 있는 도시개발 추진으로 미래 광역도시 기반 조성 등에 집중한다.

이와 관련, ▲그린빌딩 ▲그린숲 ▲

그린 모빌리티 ▲그린 에너지 등 전주형 그린뉴딜 4대 전략목표 아래 탄소 줄이기 9대 실천운동 등을 통해 녹색 도시로 나아가기로 했다. 또 10대 거점 정원도시 인프라를 조성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매입해 공원녹지를 더욱 확충하기로 했다.

전주다운 문화기반으로 세계여행도시로 만들기 위한 문화 분야는 ▲한옥 마을 리브랜딩 ▲제2의 관광거점 구축 ▲조선팔 성지 프로젝트 등 전주다운 문화관광 콘텐츠 운영 ▲핵심도시 조성 등에 공을 들인다.

특히 한옥마을 관광프램을 도입하고 전라감영의 서측부지 복원에 착수하는 등 문화관광 콘텐츠를 강화하는 동시에 전주 로파크, 한국문화원형콘텐츠 체험 전시관, 시립미술관 등 덕진·아중권역과 완산병거 1973, 전주천 여행자 광장, 전주 독립영화의 집 등 구도심 권역으로 전주관광의 외연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사회적 연대가 살아 있는 사람중심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가능한 전주형 지역재생을 추진하고 ▲아동·청소년이 시민으로 존중받고 주인으로 성장하는 도시 ▲차별

과 소외 없이 모두가 성장하는 도시 ▲J-방역으로 시민의 삶을 지키는 안전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소매를 걷어붙이기로 했다.

에코시티 복합 커뮤니티센터와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장애인 종합복지센터, 종합스포츠타운, 서부권 다목적 체육센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시는 이날 발표한 주요 사업들을 시의회·전문가·시민 등의 의견수렴과 자문 등을 거쳐 더욱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관광거점도시에 집중하고 특색을 주장했던 모든 과정이 전주와 전북이 처해 있는 근본적인 구조를 바꿔 광역시 없는 도시의 차별을 해소하고 균형 발전의 물길을 열어오기 위한 것이었다"며 "사람, 생태, 문화의 핵심가치와 함께 상상력과 용기, 연대의 힘으로 전주의 담대한 미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올해의 전북교육

"배움·성장 있는 행복학교"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코로나 시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우선 쌍방향 원격수업 지원을 위해 2월 말 공공플랫폼 내에 실시간 화상 수업 서비스인 '온더 라이브'가 개통될 예정이다.

또한 초·중 등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보조 교사제 확대, 기초학력 맞춤형 학교 운영 등을 안내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6일 열린



지구살리기·민주시민교육 학교자치·학교 재구성 등 김 교육감, 정책·방향 설명

코로나 시대 화상수업 등 교육과정 운영 새 기준도 제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배움과 성장 있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환경교육, 민주시민교육, 학교자치, 학교 재구성 등 올해 전북교육 주요 정책과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먼저 "지난해 코로나19라는 뜻밖의 재난을 겪었고 고통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며, 교육가족과 도민들을 격려했다.

이어 '지구살리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인간의 탐욕이 불러온 기후 위기와 환경 파괴를 멈추기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환경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에 집중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교육감은 "2020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유권자로 총선에 참여했다. 민주주의를 만발치에서 구경만 하는 청소년이 아니라 당당한 시민으로서 주체적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인터넷과 미디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혐오표현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차별과 폭력을 낳고 공동체 의식을 약화하는 혐오 표현 대신 학생들의 삶에 존중과 배려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교육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학교자치를 완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피력했다. 김 교육감은 "학생이 원하는 교육, 배움과 삶이 일치하는 교육에 집중하며 학생과 교사가 학교의 주체가 되는 학교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등을 활성화하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존중과 배려속에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만들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학교를 재구성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혁신교육 10년을 다짐할 삼아 모든 학교가 지역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스스로 배우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역량 있는 인재를 기르고 배움과 삶이 연결되는 참학력 향상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 위기에서 새롭게 주목받은 작은 학교들의 장점을 살려 농어촌과 원도심 작은 학교 세우기에 힘쓰고 어울림 학교 정책을 기반으로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교육생태계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www.namwon.go.kr

2021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행복한 시민 더큰남원

우리가 함께 합니다.

남원시